

광주여대, 금타 화재 피해 주민 힐링 프로그램



광주여자대학교 (총장 이선재) MAUM교육원은 지난 22·23일 본교 덕천관 3층 명상실습실에서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숨쉬자 브레스(Breath)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

RISE사업의 지원을받아대학인프라활용 온(ON) 버시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마음챙김 힐링 프로그램'은 신체

적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회복지원을 목표로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 체험, 사운드배스(Sound bath) 체험으로 운영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화재 피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경험했지만 오늘부터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적십자사·자립준비청년들 제빵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손잡고 스텝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4일과 21일 광주·전남지역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제빵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손잡고 스텝업' 프로젝트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 생활, 문화·정서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날 전남에서는 12명, 광주에서는 13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티라미수, 머핀, 뷔일 등을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에 빵을 전달하는 나눔 실천의 시간도 가졌다.

대한적십자사는 하반기에도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식품지원, 추석맞이 장보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BTS 슈가 '50억 기부'에 아미 2억 기부 동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50억원을 기부해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위한 '민윤기 치료 센터'를 건립하자 이에 동참하려는 '아미'(팬덤명)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

세브란스병원은 24일 오전 9시 현재 민윤기 치료 센터 일반인 기부금이 2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전 슈가의 기부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전남 병원 제2관 1층에서 민윤기 치료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민윤기 치료센터에서는 언어·심리·행동 치료 등 소아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임상·연구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슈가는 단순 기부를 넘어 약 7개월에 걸쳐 소아정신과 분야 권위자인 세브란스병원 천근아 교수와 함께 음악 접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직



접 만나 상호 작용을 도왔다.

슈가의 기부 소식이 알려진 뒤 연세의료원 대의협역실에는 기부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세의료원 측은 공식 홈페이지 상시 후원란에 민윤기 치료 센터 항목을 추가했으며, 약 6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 30분께 기부금이 1억원을 넘겼다. 기부금은 현재 1억원이 더해져 2억원을 넘겼다. /연합뉴스

광주시 인사

◇2급 승진(1명) ▲도시공간국 김준영
◇3급 승진(2명) ▲관광도시과 윤창모 ▲건축경관과 박금화
◇4급 승진(12명) ▲신활력총괄관 고재희 ▲안전정책관 이 덕 ▲AI반도체과 김남희 ▲민주보훈과 정진숙 ▲문화유산자원과 문진영 ▲주택정책과 정대정 ▲경제정책과 설향자 ▲에너지산업과 이병남 ▲농업동물정책과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 장미선 ▲문화도시조성과 정승철 ▲회계과 조석현

◇5급 승진(39명) ▲정책기획관 강성용 ▲여성가족과 서혜진 ▲감사위원회 고재경 ▲문화정책관 손은수 ▲경제정책과 구지현 ▲총무과 양지은 ▲대학인재정책과 김남중 ▲총무과 이수연 ▲대학인재정책과 김영준 ▲도시계획과 이영희 ▲정책기획관 김원웅 ▲5·18민주과 이재우 ▲노동일자리정책관 박문향 ▲신활력총괄관 이정훈 ▲미래

산업총괄관 박인구 ▲대변인 지상수 ▲인사정책관 박인욱 ▲세정과 김재량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고화정 ▲콘텐츠산업과 조성주 ▲돌봄정책과 김양미 ▲상수도사업본부 김범석 ▲도로과 문중수 ▲건축경관과 부유리 ▲미래차산업과 이재철 ▲농업동물정책과 최은아 ▲도시공원과 김형덕 ▲농업동물정책과 노미현 ▲기후대기정책과 김경은 ▲도로과 서주현 ▲혁신평가담당관 정현우 ▲체육진흥과 이현석 ▲관광도시과 최 용 ▲세계양궁대회지원단 기배간 ▲도시계획과 류주석 ▲종합건설본부 김상준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김태우 ▲AI반도체과 오소희 ▲보건환경연구원 정 진

◇6급 승진(60명) ▲자치행정과 김승희 ▲광주전략추진단 운영용 ▲도로과 김아영 ▲체육진흥과 윤혁호 ▲대변인 김재중 ▲정책기획관 이미라 ▲문화정책관 김태우 ▲안전정책관 이선지 ▲상수도사업본부 나연심

▲기후대기정책과 이지은 ▲안전정책관 나윤정 ▲총무과 임병수 ▲외국인주민과 서영조 ▲회계과 정승기 ▲민주보훈과 소정희 ▲노동일자리정책관 정효심 ▲미래산업총괄관 심현주 ▲감사위원회 주창후 ▲환경보전과 양미숙 ▲민주보훈과 지경열 ▲문화정책관 염승원 ▲정책기획관 최운창 ▲경제정책과 오화섭 ▲인사정책관 하승희 ▲세정과 정은지 ▲청년정책과 민수기 ▲광주광역시주하영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장경화 ▲아동청소년과 고아라 ▲시립도서관 김수영 ▲시립도서관 채성아 ▲대중교통과 박지영 ▲상수도사업본부 조재현 ▲종합건설본부 김혁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이각범 ▲로봇·전의료산업과 위영태 ▲회계과 최영수 ▲대중교통과 유양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송경훈 ▲농업동물정책과 송영선 ▲도시공원과 김영식 ▲투자산단과 백무원 ▲도로과 김현수 ▲민주보훈과 양민우 ▲시민소통과

문병옥 ▲신활력총괄관 오희선 ▲교통운영과 문준양 ▲문화유산자원과 박재진 ▲건축경관과 장석근 ▲주택정책과 윤준호 ▲종합건설본부 서재문 ▲군공향이전추진단 이인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김상현 ▲회계과 남은진 ▲사회재난과 김지운 ▲총무과 배성민 ▲회계과 채운병 ▲수목원·정원사업소 지상기 ▲상수도사업본부 장영수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박미라

◇7급 승진(80명) ▲민주보훈과 강은라 ▲에너지산업과 양희재 ▲세계양궁대회지원단 고하라 ▲체육진흥과 유지연 ▲5·18민주과 광영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이미르 ▲자치경찰위원회 김세현 ▲상수도사업본부 임재업 ▲시민소통과 김소현 ▲문화정책관 장은지 ▲회계과 김예은 ▲광주광역시 시민소통과 김은중 ▲보건환경연구원 정세연 ▲인구정책담당관 김지수 ▲시립미술관 정영주 ▲경제정책과

김지연 ▲인권평화와 정현진 ▲혁신평가담당관 김진홍 ▲세계양궁대회지원단 정효주 ▲복지정책과 나다영 ▲교육지원정책과 정효진 ▲도로과 박선영 ▲상수도사업본부 조현지 ▲기후대기정책과 박은수 ▲돌봄정책과 조혜원 ▲대변인 백선민 ▲농업동물정책과 최영주 ▲대중교통과 서재영 ▲도시철도건설본부 한상균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심수민 ▲총무과 허 훈 ▲경제정책과 양다은 ▲세정과 광준영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김보영 ▲상수도사업본부 이다솔 ▲물관리정책과 윤세영 ▲주택정책과 한진영 ▲여성가족과 권은영 ▲시립도서관 윤준영 ▲시립도서관 이소원 ▲상수도사업본부 김재현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조태환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박경학 ▲역사민속박물관 김은총 ▲상수도사업본부 최민석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김호현 ▲상수도사업본부 하동균 ▲상수도

사업본부 이우성 ▲김치타운관리사무소 박수연 ▲농업기술센터 한지선 ▲수목원·정원사업소 이지영 ▲5·18기념문화센터 최종혁 ▲건강위생과 노주연 ▲물관리정책과 강지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신채원 ▲도시철도건설본부 김건희 ▲종합건설본부 유동원 ▲복지정책과 김유지 ▲도로과 유수빈 ▲사회재난과 김장휘 ▲상수도사업본부 정민서 ▲도로과 박시현 ▲체육진흥과 정연지 ▲종합건설본부 박준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조해성 ▲상수도사업본부 서영민 ▲종합건설본부 김보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백진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김유나 ▲종합건설본부 이도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박소향 ▲종합건설본부 정경윤 ▲예술의전당 박정현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선휘 ▲AI반도체과 홍민아 ▲상수도사업본부 임창식 ▲교통운영과 전주기 ▲상수도사업본부 전 단 ▲시립도서관 진영환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5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제75주년 6.25 전쟁 행사	10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50 인간극장 스페셜	45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30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00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30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양코로 보호의 달 특집 VR 다큐 마지막 인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라바 패밀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5 한글용사 아이야 55 2시 뉴스 외전	00 보석이에 건강 수다(재)
[2]	00 KBS 뉴스 10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30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0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00 뉴스브리핑
[3]		15 월드 24 45 시간여행자 루크(재)	55 기본 좋은 날	
[4]	00 사건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Why? 15 다이노 파워즈 4 30 풀썹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일꾼의 탄생 시즌 2	50 여왕의 집	05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00 슈팅스타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30 라디오스타	40 사계의 봄
[11]	30 이수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방판뮤직 어디든 가요 스페셜		
[12]	00 KBS 중계식 <파라트21 정기연주회>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MBC 뉴스 25 35 웰컴 투 스포츠	0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07:30 엄마 까투리
07:45 레인보우 버블잼
08:00 당동당 당동당
08:5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9:05 메탈카드봇S 경찰의 귀환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디비드 붕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PD로그12
13:00 EBS 평생학교
13:30 이것이 야생이다2
14:30 클래스 e
15:10 고향민국
15:40 마사와 곰
15:55 블록스
16:10 당동당 당동당
17:00 페파 피그
17:10 엄마 까투리(재)
17:25 레인보우 버블잼(재)
17:40 도레미 프렌즈 쇼츠
17:50 사내수공업 가수 - 디비드 붕(재)

18:10 EBS 뉴스
18:30 건축탐구 - 집
19:20 고향민국
19:50 귀하신 몸
20:40 세계테마기행

<풍경 반 인사 반 중국 시골 기행
-전통 향기 사람 온기>
21:35 한국기행

<여름, 쉬어가기 3부
하룻밤 동남아 여행>
21:55 서창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22:45 박준빈의 세계 기사서당 3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4:40 클래스 e(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5일 (음 6월 1일 乙丑)

☎ 010-9790-8237

36년생 처음의 것이 가장 나으니 그것을 택하라. 48년생 발전을 위한 아픔은 감내해야만 하느니라. 60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72년생 단단한 각오하고 담벼에만 결말이 날 것이다. 84년생 이루는 것보다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니라. 96년생 유연한 사고 방식이 순조로움을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84

37년생 기대했던 바보다 큰 효과를 보게 된다. 49년생 돌고 도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61년생 이대로는 아니 되니 대폭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73년생 앞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손실을 자초함을 알아야 한다. 85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좋다. 97년생 충실한 대응하면서 앞날 여건으로 만들자. 행운의 숫자 : 02, 87

38년생 잘 활용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도다. 50년생 선행을 하고도 빛을 보지 못할 수이다. 62년생 부가적 기능이 주된 목적을 저해하는 번거로움이 보인다. 74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86년생 피리부둥하니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다. 98년생 한 눈에 썩 들지는 않겠지만 수용하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80, 63

39년생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51년생 힘든 만큼 수확의 결실도 알차겠다. 63년생 대상을 넓히고 다양하게 섭렵 하자. 75년생 결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니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87년생 다시 보면 달리 보일 것이니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확보하라. 99년생 급급해 왔던 것이 곧 해결되겠다. 행운의 숫자 : 07, 52

40년생 위기를 기회로 급변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52년생 일상을 내려놓고 파안대소할 일이 있겠다. 64년생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니 계속 밀어붙여라. 76년생 포기하다시피한 것이 회생하여 기쁘겠다. 88년생 상대의 눈앞 속에 는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00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1, 68

41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53년생 대사를 도모할 수 있는 적기에 이르렀다. 65년생 지금의 고통은 내일의 행복을 기약하리라. 77년생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89년생 보면서도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01년생 현재에 국한시키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갖자. 행운의 숫자 : 49, 75

42년생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54년생 제대로 살펴보고 입해야 할 것이다. 66년생 새로운 것들을 접하다 보면 전망이 밝아진다. 78년생 불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책이다. 90년생 변동하지 말고 관망하는 것이 낫다. 02년생 무리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중하다. 행운의 숫자 : 03, 73

43년생 실재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실히 다짐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55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떠벌려날 것임에 틀림없다. 67년생 관심 있게 살펴본다면 파악할 수 있으리라. 79년생 중론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판단하자. 91년생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쇄적인 탄력을 받는다. 03년생 배후에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10, 96

44년생 순간의 선택이 전체적인 국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6년생 상당히 타격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각오하라. 68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80년생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될 것이다. 92년생 나타날 때까지 예의 주시하라. 04년생 강풍이 몰아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6, 91

45년생 불합리하다면 사전에 제거하고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고 본다. 57년생 치열하게 고생한 만큼 보람도 느낄 것이 나리. 69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원이 생길 것이다. 81년생 얼마만큼 치밀한 상황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판이해진다. 93년생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05년생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72

46년생 속도에 집착하다 보면 불안정하게 끝맺는다. 58년생 추진하던 일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해답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70년생 신중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82년생 기왕 시작하면 끝을 보는 것이 좋다. 94년생 별의 별 방법을 다 써 봐도 헛수고일 뿐이다. 06년생 은연중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99

47년생 목표를 향해서 발돋움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59년생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니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71년생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면서 활기차게 변성하는 운로이다. 83년생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95년생 결과물이 도출되는 기쁨을 맛보겠다. 07년생 무리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5, 86